Residential SOUL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BRITISH PROPERTY AWARDS 2021-2022 GOLD WINNER

코리안위클리
THE KOREAN WEEKLY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1470호 | The Leading Weekly Newspaper For Koreans Since 1991 | koweekly.co.uk | 4 NOVEMBER 2021

디젤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평균 가격 리터당 147.94p, 전년 대비 30p 상승 … 가계와 기업에 큰 타격

지난주 휘발유 가격에 이어 일주일 만에 디젤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리터당 디젤 평균 가격은 147.94p. 지난 2012년 4월 147.93p 기록을 9년 7개월 만에 뛰어 넘은 것이다.

자동차 그룹 RAC에 따르면 디젤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리터당 30p 올랐다. 55리터 탱크를 채울 때 £81가 든다. 1년 전 £65에서 £16 상승했다.

지난주 휘발유 1리터의 평균 가격은 142.94p 였다.

RAC의 대변인 사이먼 윌리엄스는 "디젤 가격 급등은 이미 치솟는 휘발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운전자와 기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에는 약 450만 대의 밴과 525,000대의 대형 운송 차량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디젤로 운행한다.

영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니쉬 수낙 재무장관은 가을 예산 보고서에서 운전자에게 매년 최대 £66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세 인상 계획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정에서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 펌프 보일러로 전환할 수 있도록 £5,000의 보조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에너지 회사 Centrica의 크리스 오샤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수백만 가구를 개조하려는 정부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40,000명의 난방 엔지니어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부

겨울철 좀도둑 막는 안전 팁 (킹스톤 경찰 제공)

- 잠시 외출할 때도 반드시 문과 창문 모두 닫고 잠그기.
- 열쇠로 컨서버터리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할 것.
- 옆문 또는 뒷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할 것.
- 창고·차고 문도 반드시 잠그기.
- 창밖에서 볼 때 귀중품이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하기.
-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두워질 경우 실내등 미리 켜 두기.
- 차 키나 주요 문서 창문 가까이 또는 편지함에 두지 말 것.

본지 다음호 발행 11월 18일

11월부터 공항 승객 내려줄 때 £5 부과

1일(월)부터 히드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만 내려줄 때 매번 £5를 내야 한다. 런던 혼잡세 부과 방식처럼 하차 구역 진입시 자동 번호판 인식(ANPR)으로 차량을 분별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또는 방문 당일 자정까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은 £80. 14일 이내 지불하면 £40. 개트윅 공항과 루턴 공항은 이미 시행중이다.

공항 측은 하차 비용을 피하려면 30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장기 주차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각 터미널로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셔틀 버스는 터미널까지 약 20분 소요된다.

히드로 공항은 팬데믹 기간 동안 20억 파운드 이상 손실을 입었다. 공항 측은 하차 비용 부과를 통해 연간 1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가슴에 꽃을 다는 이유는? 11월 14일 리멤브런스 데이 »18

권석하 흥미진진한 사건 많은 햄턴 코트궁 »20

김건 대사 신임장 제출 도포 차림에 갓쓰고 »22

아이러브스테이지 공연 관련 유학생 취업 기회 »23

가이에게 적선 하세요 11월 5일 '가이 폭스 데이' »38

BHi Accounting
영국공인회계사
BH1 회계법인
법인설립 | 법인 & 개인 세무신고
Payroll 서비스 | 컨설팅 구매대행 환영
Address V307, Vox Studios, 1-45 Durham Street, Vauxhall, London, SE11 5JH
Phone 07496048148
Email admin@bh1accounting.co.uk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07379 960 460 /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Soldeli
Japanese Sushi and Fine Dining at Home
생선 횟감, 초밥용 수산물과 각종육류, 집앞까지 매일 배송. 영국 전역.
£70 이상 무료. 주 6일 배송.
참치, 방어, 연어, 일본 와규, 성게알, 일본술, 전복 등.
soldeli.co.uk

KIB보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Since 1992
자동차·집·회사·의료·상업보험 등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020 7847 8630/1 info@kib.co.uk
1st Fl, 3 London Wall Buildings, London EC2M 5PD

워크비자/스폰서쉽 18면 참조
솔렙비자/사업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한국에서 포장재를 수입하세요!
주문제작 사이트
www.pojangposs.com
기성품 사이트
www.pojangboss.com

PUMEX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뉴몰든 항공택배 사무소 OPEN
뉴몰든, 하나투어 빌딩 (38 High Street)
☎020 8946 9991/020 3793 3395
안틱 당일 배송 · 포장 · 픽업
일반 특송
구매 · 배송 대행
24시간 상담
☎07960 879 234

BLUEBIRD -Residential-
020 8949 2424
077 9507 8462
info@bluebirdresidential.com
카카오톡 상담 검색아이디: ukbluebird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A3 MOTORZ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보일러 전문
Gas Safe 228117
BK Plumbing
☎07749 041 126
BKL7777@gmail.com

CX특송 Grand Opening!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4.75 부터!
20kg 박스 £69부터!
< 5면 참조>
ELOCOM EXPRESS
uk@celocomx.com
075-6265-3572
플러스 친구 : CX특송
아이디 : cxlondon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 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영국비자센터 www.IMIN4U.com
IMIN4U 영국정부승인 No. F20160101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솔렙/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 07886 665 921

REGISTERED AS A NEWSPAPER AT THE POST OFFICE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은 햄턴 코트궁

희망은 사악하고 해로운 잡초다.
Hops are a wicked and pernicious weed.- 헨리 8세.

햄턴 코트궁Hampton Court Palace은 런던 한인 타운이 있는 뉴몰던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의 공항 가는 길에 있다. 그런데도 이 궁은 이상하게 그다지 한국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런던 한인 타운에 사는 교민들은 손님이 많이 오는 철이면 히드로 공항을 오가며 하루에도 궁을 여러 차례 보곤 한다. 더군다나 교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있는 골프장이 햄턴 코트궁의 정원과 바로 붙어 있어 가까이에서 궁을 볼 기회가 많다. 영국 역사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관광지를 들자면 아마 햄턴 코트궁은 런던탑 다음일 텐데도 말이다. 윈저성은 오래전에 세워졌고 지금도 여왕이 사용하긴 하지만 역사에 직접 얽힌 사연은 별로 없다. 이에 비해 햄턴 코트궁은 흥미진진한 사건들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헨리 8세와 연관이 많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15~18세기 초

영국에서 드라마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시기가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까지다. 헨리 7세로 시작해 윌리엄 3세로 끝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영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주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장미전쟁, 종교개혁, 엘리자베스 1세 집권, 시민혁명, 크롬웰, 찰스 1세 처형, 명예혁명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 기간 동안 다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우리 역사 또한 이 시기에 영국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비운의 단종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종, 선조, 임진왜란, 연산군, 중종반정, 광해군, 인종반정으로 이어진다. 그때 세계는 동서를 막론하고 정변의 시기였나 보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튜더스The Tudors〉라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시기라고 알면 쉽다. 햄턴 코트궁은 그 질풍노도 시기의 중심이었다. 지금 영국 왕실의 주요 궁전인 버킹검궁은 아직 등장하지 않을 때였다.

햄턴 코트궁은 같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게 붉은 벽돌로 지어진 궁이다. 몇 세대에 걸쳐 중건해서 원래의 튜더식에서 바로코식까지 뒤섞여 있다. 원래는 헨리 8세의 중신인 토머스 울시 추기경이 1514년 자신의 관저로 사용하고자 거액을 들여 지었던 건물이다. 토머스 울시 경도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이다. 천민인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거의 신분을 바꿀 방법이 도저히 없던 시기에 사제가 되어 어렵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은 대단한 야심의 사나이였다. 당시에는 신분을 바꿀 방법은 돈과 힘밖에 없었다. 소위 말하는 '벤처venture', 즉 미개지 탐험이나 해적질을 가서 일확천금해서 왕에게 바치고 작위를 받거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거나 하는 방법이 그것들이다. 이외에는 성직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울시 경은 신부로서 최고의 지위인 추기경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로마 교황이 되기 위해 선거 운동까지 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 관사를 궁palace이라고 부른다. 왕이 살지 않는 곳을 궁이라 부르는 유일한 경우다. 신권으로 보면 주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다. 신권과 왕권으로 나누어진 유럽 사회의 권력 판도를 보는 듯하다. 울시 경은 햄턴 코트궁을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주교들이 사는 궁처럼 지으려고 했다. 런던 시내 중심에서 차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위치인 데다가 템스강을 통해 당시 권력자 헨리 8세가 살던 왕궁이었던 런던 탑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 왕과 귀족들의 사냥터였던 리치먼드 공원도 멀지 않아 권력자가 탐할 만한 위치였다. 그런데 울시 경은 이 궁을 짓다가 헨리 8세에게 바쳤다. 자신이 눈 밖에 나고 있는 낌새를 채고 총애를 되찾으려 마지막으로 애썼으나 결국 실패해서 궁만 뺏기고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던 중에 사망했다. 그 이후 햄턴 코트궁은 영국 왕실의 궁전으로 사용되어왔다.

명예혁명과 시작된 햄턴 코트궁의 비화

건물 면적으로 봐서는 결코 햄턴 코트궁은 유럽 왕궁 중에 손꼽힐 정도는 아니다. 귀족의 개인 저택 중에도 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예가 많다. 그러나 유럽 왕궁으로서 이만큼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경우는 드물다. 더군다나 실내 장식품이나 가구들까지 말이다. 영국 본토는 유럽을 휩쓴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부터 비껴나 있었고 혁명도 없었기에 이처럼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유럽 나라들의 왕궁은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파괴되거나 약탈당했고, 혁명 기간 동안 매각되는 등 갖은 화를 입었다. 독일이 전자의 경우고, 후자의 경우가 프랑스다. 특히 프랑스는 대혁명 때 혁명군이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의 물건들을 공매 처분했다. 1793년 8월 23일에 있었던 베르사유 궁전 가재도구들의 경매는 실로 유명해서 '세기의 경매Sale of Century'라고 불린다. 그때 영국에서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여왕의 호화 침대를 사들여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유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중부의 장미전쟁 무대 중 하나인 워릭성에는 앙투아네트 여왕의 아름다운 벽시계가 걸려 있다. 다른 물품들도 유럽의 다른 왕실이나 부유한 귀족 가문으로 흩어져갔다. 또한 유럽에는 왕조 자체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어버려 왕실은 물론 귀족이 없어져버린 나라가 대부분이다. 햄턴 코트궁의 가재도구들도 일부는 시민전쟁 때 크롬웰이 판 적이 있다. 그 이후 조지 왕 시절 다시 갖추어져 여태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21면으로 이어짐〉

조지안 시대 응접실. 18세기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유럽 왕궁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

헨리 8세의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의 귀신이 나온다고 전해지는 '왕의 예배실chapel royal' 바로 앞 '귀신이 나오는 복도haunted gallery'

〈20면에서 이어짐〉 400여 년 전 영국 왕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햄턴 코트궁 정문에서 왼쪽은 헨리 8세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튜더 지역이다. 오른쪽은 1688년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과 메리 여왕이 들어온 뒤에 다시 중건된 스튜어드와 조지안 시대 것이다. 특히 18세기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유럽 왕궁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로 시집갔던 메리는 성공회 중신들의 반역에 동조해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남편 윌리엄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다. 딸이 아버지를 쫓아낸 사건을 영국 역사책은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하고, 우리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부른다. 아무리 영국 역사가 승자인 성공회 측의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통념으로 보아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메리와 윌리엄은 햄턴 코트궁을 화려하게 수리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신혼 살림처였던 네덜란드의 헤트루궁처럼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다. 우선 햄턴 코트궁을 들어가기 전 정문 옆에는 로마 황제들의 테라코타terracotta 진흙 두상이 장식되어 있다. 오랫동안 유럽에는 로마 황제들이 현인이었다는 믿음이 존재해서 건물에 로마 황제들의 두상을 새기거나 실내에 비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햄턴 코트궁의 로마 황제 테라코트 두상을 제작한 작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지오바니 디 마이아노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인데 이를 기록한 영국인의 꼼꼼함이 대단하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볼린Anne Boleyn 문을 지나 뒤돌아 위를 올려다보면 유명한 천문 시계 astronomical clock가 보인다. 1540년에 헨리 8세를 위해 만든 대형 시계다. 시간은 물론이고 달 모양, 날짜, 월, 분기, 해와 별의 상징, 게다가 당시 템스강 유일한 다리였던 런던브리지 인근의 밀물과 썰물 표시까지 되어 있다. 기막힌 과학 기술이 아닐 수 없다. 헨리 8세가 햄턴 코트궁에서 자신의 집무실인 런던탑으로 가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배였다. 왕이 햄턴 코트궁에서 탑으로 가는 길에 조수潮水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스튜어드와 조지안 시대의 생활상이 생생

이제 건물 오른쪽으로 들어가 계단을 지나면 그레이트홀이 나타난다. 헨리 8세가 파티를 하고 신하들 전체를 만나던 어마어마하게 큰 홀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도 작은 홀은 아닌데 당시로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왕이 파티를 벌일 때는 손님이 이 홀에 가득했다. 왕은 조금 높은 연단 위에서 식사를 하면서 파티를 즐겼다. 홀 벽에는 헨리 8세가 소유하던 큰 카펫이 걸려 있다. 모두 벨지움에서 수공으로 짠 물건이다. 네덜란드와 벨지움이 영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은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수출하는 양모를 받아 네덜란드가 양복지를 생산하고 벨지움은 카펫을 생산해서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왕의 내밀한 방들이 있다. 그중에는 왕이 신하나 손님을 만나는 홀이 있다. 그 뒤로 왕의 사무실 겸 옷방 등이 있다. 왕과 가까운 측근일수록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더 지나가면 '왕의 예배실chapel royal'이 있다. 바로 그 앞이 유명한 '귀신이 나오는 복도haunted gallery'다. 헨리 8세의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의 귀신이 나온다고 전해진다. 캐서린은 16세에 49세였던 헨리 8세의 왕비가 되었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형당했다. 캐서린은 결혼 전부터 애인이 있었다. 사형이 되기 전 자기 방에서 연금되어 있었는데, 잠시 탈출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헨리 8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용서를 못 받고 끌려 나가면서 비명을 질렀고, 그 이후 복도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설이 있다. 최근까지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격담도 있고 궁 경비 카메라에 잡혔다고 보도된 적도 있다. 그때 귀신이 촬영된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이 복도는 관광객의 인기를 끈다.

궁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스튜어드 시대와 조지안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방불케 하는 천장화가 눈길을 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온 손님이 대기하는 큰 홀을 맞닥뜨리게 된다. 홀의 벽에는 각종 무기가 원형으로 장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홀을 지나면 차례로 홀이 나온다. 연속으로 이어진 홀로 들어갈수록 손님의 경중이 가려진다. 깊이 들어가서 왕을 만날수록 귀중한 손님이 된다. 가장 끝이자 코너에는 왕의 집무실이 위치한다. 집무실에는 양쪽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볼 수 있는 거울 장치가 되어 있다. 화장실도 딸려 있는데, 수세식이 아니라 조그만 방에 그냥 요강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요강만 치우면 은밀한 회의실이 된다. 왕이 중신들의 모임을 매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방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중신들의 모임은 '추밀원Privy Council'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여왕의 자문기구로 영국 정부 조직에 존재한다. 이 방을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의 신하들이라는 뜻이다.

햄턴 코트궁의 내정. 유럽에는 수많은 저택과 왕궁이 있지만 햄턴 코트궁만큼 알찬 곳이 드물다. 만일 영국 왕들의 제대로 된 삶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햄턴 코트궁을 찾아야 한다.

코너를 돌면 정원을 완전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남향의 방들이 나온다. 왕과 여왕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왕의 옷 방King's dressing chamber, 여왕이 개인적인 손님을 만나는 여왕 접견실Queen's presence chamber 그리고 식당dinning room 등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의 저택 식당에는 천장에 조명이 없다. 촛불을 켜고 밥을 먹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럽의 오랜 풍습상 평민은 저녁 식사를 해가 있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빨리 먹고 해가 지면 바로 잔다.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부유한 귀족은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연회를 즐기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해가 지면 잤다. 한국도 1960년대에 석유등을 썼는데 기름 값이 비싸서 해만 지면 잤다. 그리고 원래 유럽인은 1일 2식을 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자기 전에 밤참을 먹었지 일반 서민은 당연히 1일 2식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개는 하루에 밥을 두 번밖에 안 준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어 1일 3식을 하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향의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님방이나 하인 그리고 왕자가 거처하던 방들이 나온다. 드디어 아주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온 셈이다. 금방 사람이 밥을 먹고 일어난 듯 식기와 수저가 놓인 식탁, 여인이 막 화장을 마친 듯한 화장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하녀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목욕을 했을 방 한가운데 놓인 욕조, 붉은 커튼이 사방에 내려진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명화 등이 발길을 잡는다. 특히 그중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3인방 중 한 명인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zio의 〈예수 제자들의 사역〉 사본이 걸려 있다. 원래 있던 원화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사실 유럽에는 수많은 저택과 왕궁이 있지만 햄턴 코트궁만큼 알찬 곳이 드물다. 만일 영국 왕들의 제대로 된 삶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햄턴 코트궁을 찾아야 한다.

매끼 1000명 식사하던 튜더 키친

이곳에서는 매년 7월에 플라워 쇼 Flower Show가 열린다. 또한 6월에는 햄프턴 코트 팰리스 페스티벌이 열린다. 겨울에는 궁 안의 작은 광장에 얼음판을 얼려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수려한 나무들과 화려한 정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햄턴 코트궁은 세 가지의 '세계 명물'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정원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 테니스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포도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워 쇼'가 그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니스장'은 1528년 헨리 8세 때 만들어졌으며 실제 헨리 8세가 사용했다. 당시 '레알real 테니스' 혹은 '로열royal 테니스'를 했는데, 이는 지금도 일부에서 하는 라켓 스포츠의 일종으로 테니스의 원형이다. 바닥과 벽을 이용해 두 명이 실내에서 경기하는 스쿼시와 비슷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는 1769년에 심어졌다. 지금도 살아 있고 매년 포도를 생산한다. 그리고 정원에서 매년 7월이면 플라워 쇼가 열린다. 자칭 세계에서 제일 큰 플라워 쇼라고 하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가는 길에는 '튜더 키친Tudor Kitchen'을 반드시 봐야 한다. 헨리 8세 시절에는 이 궁에서 거의 1000명이 실제로 식사를 했다. 그 인원에게 밥을 먹이던 부엌을 재현해서 보여준다. 매 끼를 해결하는 일이 큰일이었던 그 시대에는 궁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권한은 아주 중요했으며 자식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다. 왕이 일종의 식객 형태로 측근과 충신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도 식객을 많이 거느리다가 필요하면 그중에서 각종 재주 있는 재사才士를 선별해 이용했었다. 만일 영국을 방문해 런던에서 하루 이상 머물면서 런던 교외를 다녀오고 싶다면 햄턴 코트궁은 반드시 방문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40년 영국에 살며 본 '두터운 유럽'

프랑스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위치한 라부 여인숙.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에 머물던 다락방에서는 지금도 곰팡이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난다.

37세 젊은 화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27년이 지났지만 라부 여인숙을 찾은 방문객은 다락방의 공간에서 고흐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에 있는 건지섬에는 빅토르 위고가 있다. 위고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던 프랑스로부터 스스로를 망명시켜 건지섬에 머물렀다. 언덕 위 하얀 집들이 늘어선 평화로운 이곳에서 '레 미제라블'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재영 칼럼니스트인 권석하씨는 이렇게 유럽 전역에 걸친 공간을 되짚으며 역사적 인물의 생애와 그들의 예술작품을 재현해낸다.

국가공인 여행가이드 중 제일 따기 어렵다는 영국 예술·문화·역사 해설사 자격증(Blue Badge)을 딴 저자가 쓴 유럽 문화사.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유럽 곳곳을 누비며 보고 들은 공간적 맥락 속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을 두텁게 담았다.

구입처
GGM, 보라여행사

권석하

보라여행사 대표이사, IM컨설팅 대표.
영남대학교 무역학 전공. 1980년대 초 주재원으로 영국 건너와 현재까지 거주. 유럽 잡지·도서와 미디어 저작권 중개업무를 담당. 월간 '뚜르드 몽드' '요팅', 도서출판 학고재 등의 편집위원.

저서로는 번역: 영국인 발견(2010), 영국인 재발견1, 2(2013/2015)과 유럽문화탐사(2015), 두터운 유럽(2021)

영국 국가 공인 관광가이드.

추천 베스트셀러

엄마의 자존감 공부 (2)

'너 하나만 잘되면 된다'는 얘기는 너 혼자 온 가족의 꿈을 짊어지라는 얘기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절대 실패해서도, 비뚤어져서도 안 되며, 엄마가 정해준 길만 가라는 얘기다. 착한 아이들은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피해의식으로 발전한다. 가장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부모에게 당했다는 심정에 빠지는 아이러니. 착하디 착해서 엄마가 원하는 걸 줘야 한다는 생각과 그걸 못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안으로 곪아 병들어버린다.

부모가 준 죄책감을 지고 사는 아이들은 마음도 힘들지만 몸도 슬퍼진다. 한창 건강하고 활발하게 뛰어다녀야 할 아이가 방 안에 틀어박혀 누워버리는 것이다. 마음에 상처나 짐이 없는 아이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늘이 없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망치고 부모와 멀어지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취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당당한 성인으로 성장한다.

살다 보면 자녀들 누구나 힘든 고비를 지나게 된다. 운명적으로 그 시기가 왔을 때 엄마는 기꺼이 아이들이 밟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땅이 돼줘야 한다. 엄마는 아이가 지하로 떨어졌을 때, 불행한 사건을 겪을 때, 온몸으로 받쳐주는 첫 번째 은인이 돼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다시 힘들 얻어 세상에 나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은인을 만날 수 있다. 아이를 올라오게 하려면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올라왔을 때, 그 시간이 아픈 과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준 경험이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너의 그 깊이가 곧 높이라고, 그 깊이만큼 뿌리가 단단한 사람으로 커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엄마가 아이를 세심하게 돌본다면, 아버지가 줘야 할 것은 '여유'다. 그 무렵의 아이에게는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네 편이야' 같은 동지 의식과 전우애가 정말 필요하다. 남자 대 남자로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일수록 나중에 더 잘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리'다. 그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계속 달라지지만, 분명한 건 서로의 반경과 공간을 침해하면 그 어떤 생명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병들기 쉽다. 자신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평생을 끊임없이 일을 벌려본 내 경험으로 보자면, 자신감은 전적으로 '몸의 언어'다.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육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 것. 그걸 보고 내 마음이 '나는 역시 믿을 만해'라고 속삭이는 것.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신뢰를 구축해야만 생기는 게 자신감이다.

결국 자신감이라는 건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 언어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친다고 없던 자신감이 결코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10프로의 자신감만 있어도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준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의 실패에 '좋은 경험했다. 이만하면 대성공이다'라고 말해주는 의연함과 비록 실패했더라도 아이의 자신감이 1프로 정도 성장한 것을 알아봐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성숙함이다. 초라하지만 뭔가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금'에 용기를 주고 약간의 좌절을 포함한 빈약한 결과를 높이 평가해주자.

그 시작에는 언제나 엄마의 따뜻한 응원이 있다. 스스로 도전해서 받은 작은 실패, 작은 상처는 양질의 상처다. 아물면서 실패에 대한 해석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엄마가 먼저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 물어봐서 얻은 답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답을 해줘야 한다. 엄마란 30년 먼저 태어나서 30년 먼저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은 속박하지 않으면 자율성이 살아난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는 속박하면 할수록 잘 큰다고 착각한다. 스스로 아이들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호흡기를 갖다 댄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 모든 아이가 갖고 태어난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밀어주는 건 인공법칙이고 공감하고 안아주는 건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이 충분히 채워져야 인공법칙이 먹히지 인공법칙만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스스로 뛰게 만들 수 없다. 아이들은 밀어줘야 뛰는 게 아니라 안아줘야 뛴다.

글쓴이 거산 윤필립
필리핀 중앙교회 담임목사
아브라함 신학교 총장
저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재영한인 게시판

민주평통 20기 영국협의회 출범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협의회장 장도순)가 10월 23일 (토) 힐튼코밤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출범식에는 자문위원들과 김건 주영대사, 김숙희 재영한인회장, 권오덕 노인회장 등 초청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대사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자문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외에 있는 평통 협의회는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한인단체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기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주영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긴급 연락처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영국 경찰 긴급전화 : 999 (긴급) 또는 101(비긴급)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서울, 24시간)

■ 뉴몰든 순회영사 안내 (2021년 11월)

– 일시 : 11월 16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레인즈파크 한인종합회관 (108–110 Coombe Lane, SW20 0AY)
– 문의 : 주영국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0)
* 순회영사를 이용하실 경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 처리 업무

- ▫ 여권 신청서 접수
-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접수
- ▫ 공증 및 영사 확인 문서 접수
- ▫ 출생신고 등 각종 호적 관련 문서 접수
- ▫ 운전면허증 번역본 신청서 접수
- ▫ 기타 영사 업무 관련 각종 상담

300여년 역사 런던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 한국 가곡 울려퍼진다

영국 왕립음악원 출신 한인 신진 연주자들의 공연이 런던 중심 무대에 오른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5일 런던 시내 피카딜리 서커스에 위치한 유서 깊은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서 하우스콘서트를 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피아노 트리오인 트리오 마졸리니(Trio Mazzolini),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성빈, 성악가 오원식(베이스)과 앙그라드 로우랜스(메조소프라노)가 무대에 오른다.

하우스 콘서트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신진 한인 음악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세인트 제임스 교회는 영국의 세인트폴 대성당을 건축한 저명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해 1684년에 문을 열었다. 공연장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유명 클래식 연주자와 대중음악 가수들이 찾았다.

이날 공연에는 윤학준의 '마중', '잔향', 정애련의 '별을 캐는 밤' 등 한국 가곡도 포함돼 있다.

한국문화원은 "이번 행사는 영국 내 한국 클래식 위상을 높이고,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이국적인 선율을 통해 현지 공연 문화 산업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GREEN FARM
korean style rice cake dessert

☎ 07379 960 460
(주문은 새벽5시-낮12시)

콩나물
각종 떡 전문

43 Martin Way, Morden,
Surrey SM4 4AH

GAS safe REGISTER
보일러·전기
전문기술사 (WIM Home Care)
NAPIT

설치 · 수리 · 안전점검
Building Regulation / CERTIFICATE 발급
07971 998 218 / wimhomes@hotmail.com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 정비 전문
■ 도색 전문
■ 보험·수리
■ MOT 대행

0208 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PUMEX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뉴몰든 항공택배 사무소 OPEN
020 8946 9991 / 020 3793 3395 / 07960 879 234
뉴몰든 하이스트릿 하나투어 빌딩 1층 KT3 4HE
안틱 당일 배송 · 포장 · 픽업 / 일반 특송 / 구매 · 배송 대행

씨엔씨 익스프레스
C&C EXPRESS

국내 이사
해외 이사 전문

완벽한 포장·최고의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씨엔씨 익스프레스

01483 322 505 / 07740 283409 /
07833 671 027 / express@urcnc.com
WARE HOUSE: UNIT2, TANNERY HOUSE, TANNERY LANE SEND, WOKING, GU23 7EF

mh Murray Hay Solicitors
박정현 변호사
020 8704 4541 info@murrayhay.co.uk www.murrayhay.co.uk
Property Law, Planning Permission 어필 항소
가정법/민사, 유언/신탁, 상속법 등
3 Eastfields Avenue, Riverside Quarter, London SW18 1GN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

세탁·수선 전문
세탁 : 의류, 이불, 커텐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미소하우스 (miso house) 하숙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 석 한정식,
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플루트와 음악이론 전문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그레이드 최고 성과 수많은 장학생 배출 선생님들도
익명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OCR Edexcel IGCSE),
11+ 13+ 과학 수학 Non Verbal,
학교 진도cover, 숙제 봐드림, 한국 과학,
런던대 과학교육학 석사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스마일캡 미니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클래식 기타아 / 피아노/ Music Theory
www.duoart.co.uk

ABRSM Grades 1 to 8, All Levels 환영
MA, BMus 음대 전공졸업, 교육경력 25년,
** 온라인 / 오프라인 수업 진행중

☎07894 237 044 / 020 8949 8852

수학 물리 과외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졸 20년경력
A level, GCSE, IB, AP, Pre-U, SAT
Further math, STEP, MAT, Olympiad, 경시대회준비
대학수학/통계, 한국수학

☎ 07958 677211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A3 MOTORZ
에이쓰리 모터즈

MOT
£29.99
Free Retest
(Mon – Sunday)

튠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기술자 염관식
· 20년 이상 경력 소유
·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푸른농원 직원 구합니다

Full time 주 6일 근무 (수요일 휴무)
오전 5시 ~ 낮 2시
운전가능자
SM4 4AH, 모던

☎ 07894 330 988 / 020 8417 1123

코리안 위클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가이에게 적선 좀 하세요(Penny for Guy)”

소방서가 가장 바쁜 날 11월 5일 ‘가이 폭스 데이’

11월로 들어 서면, 갑자기 길거리에서는 영국 어린아이들이 커다란 인형을 앉혀 놓고 돈을 구걸한다. 이 인형과 아이들의 구걸은 모두 11월5일 가이 폭스 데이(Guy Fawkes Day)의 풍속이기 때문이다. 불꽃과 모닥불로 온 밤을 밝히는 가이 폭스의 날에 화형식에 처해지는 인형의 제작비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풍습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잔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이 폭스라는 인형 앞에는 대개 “가이에게 적선 좀 하세요(Penny for Guy)”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흉측하다 못해 동정심까지 유발하는 이 인형의 이름이 바로 ‘가이’이다. 차리고 있는 행색이 분명 성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 이 가이 폭스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해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일까?

1605년 가톨릭 신자인 가이 폭스와 그의 일당은 제임스 1세 국왕과 국회 의원 등 모든 요직의 인물들이 모이는 국회 개회식날인 11월5일 국회 의사당을 폭파시키기로 합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왕의 신교 옹호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 폭스의 주도하에 약 30배럴의 화약과 도화선 등을 의회가 열리는 방 아래에 설치하는 데까지 성공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척이 이 폭발로 다칠 것을 염려한 카톨릭교의 한 멤버가 그의 친척에게 11월5일 의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 편지를 의심한 그 친척과 동료들이 국회 의사당을 수사한다. 마침내 지하에서 화약통을 쌓아 놓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 폭스는 체포되고 만다.

결국 불운의 가이 폭스는 다음 해 1606년 1월31일 우리의 능지처참격의 사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한다.

1605년의 이 사건은 지금도 매년 11월 영국 정기 국회 개회식날 아침이면 재현되고 있다. 런던 탑에 가면 빨간 제복에 튜더 시대의 멋진 의상을 걸치고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에도 곧잘 응해 주는 비프이터(Beefeater)라는 왕실 위병이 있다.

유명한 런던 드라이 진의 상표에도 등장하는 이 위병들이 비프이터 즉 소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불린 것은 예전에 소고기를 봉급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들이 개회식

1605년 가톨릭 신자인 가이 폭스와 그의 일당은 제임스 1세 국왕과 국회 의원 등 모든 요직의 인물들이 모이는 국회 개회식날인 11월5일 국회 의사당을 폭파시키기로 합의한다.

1605년 11월 5일 국회의사당 폭파시도가 발각되어 사형당한 가이 폭스

아침이면 국회 의사당으로 불려 와서 1605년과 똑같이 등불을 켜고(전깃불이 환히 켜져 있는 21세기라는 것은 완전히 잊은 사람들처럼) 제 2의 가이 폭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하를 수색한다.

침입자나 폭약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왕에게 들어 와도 안전하다는 전갈을 보내야만 국회 개회식의 주요 절차인 시정 연설을 위해 여왕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이니 가이 폭스의 계획이 당시 영국 왕실에게 꽤나 겁을 주기는 준 모양이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부지한 제임스 1세는 그 안도와 환희로 1607년 11월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기념하였다. 이 공휴일 제도는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폐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부터 매년 11월5일에는 가이 폭스의 인형들을 화톳불에 태우고 불꽃놀이를 하며 이 날을 기념해 왔다. 이러한 행사들 중에는 체계적인 대규모 행사들도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마련하는 사적인 소규모 행사들도 있다. ‘가이 폭스의 밤’은 ‘화톳불의 밤’, 또는 ‘불꽃놀이의 밤’이라고도 불린다.

모닥불파티와 함께 가이 폭스 데이의 또 다른 재미는 불꽃 놀이이다. 음악에 맞추어 때로는 작은 불꽃이 눈을 간지럽히며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이 온통 무너져 앉을 듯이 웅장하게 터지는 것을 보면 불꽃과 음악이 한 생명체를 이룬 듯하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시에서 주관하는 불꽃 놀이 외에도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화약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뜰이나 넓게 트인 공간에서 뻥뻥 화약을 터뜨린다. 그래서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묻어 있다.

가이 폭스 날은 작은 화약 사고와 화재로 소방서는 일년 중 가장 바쁜 날이며, 신문, 방송 등에서는 부모들에게 안전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값싼 중국산 화약이 터져 몇 명이 다쳤다는 식의 뉴스가 등장하기도 한다.

11월로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빨이 찾아드는 영국의 밤은, 길고 추운 겨울을 예고하는 것 같아 썩 달갑지 않다. 그러나, 11월 5일 밤 곳곳에서 치솟는 불길과 폭약소리는 결코 길고 추운 겨울에 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보인다. 다가오는 동장군에게 여봐라는 듯이 환영인사라도 하는 것 같다. ‘가이’의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목숨과 바꿔야 하는 종교 대립이 없어진 지금도 여전히 가이 폭스의 날이 인기를 끄는 것은 겨울의 장막을 걷는 화끈한 이 맛 때문이 아닐까?

정미선 〈이층버스와 버버리코트 중에서〉 중에서

KS 종합건축
GAS safe REGISTER 228117

Building	Gas&Plumbing	Refurbishmment
Extension Loft Conversion New Building **Restaurant / Office** (주방설계, 에어닥터, 에어컨) **HMO 시공 전문**	Under Heating 전문 **Install Boiler** Gas Work *영국 자격증 소지* (Domestic/Commercial /Gas Certificate)	Electricity Window (설치, 교체, 수리) Plastering & Paint **Bathroom & Kitchen** **Flooring**

☎ 07749 041 126
BKL7777@gmail.com

보일러 전문
GAS safe REGISTER 228117
BK Plumbing
☎07749 041 126
BKL7777@gmail.com